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313>

JCCT 2024-5-37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nse of community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정영미*, 김태량**

Jeong Yeong Mi*, Kim Tae Ryang**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부산·경남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고 주요 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ron과 Kenny가 제안한 3단계 검증 방식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공동체 의식이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지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는 대학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정서지능 기술과 사회적 참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 실행하려는 노력을 통해 대학생들이 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대학생, 공동체 의식, 심리적 안녕감, 정서지능,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college students' sense of commun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ly,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267 college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in the Busan and Gyeongnam regions. For data analysis, the SPSS 21 program was used to check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the main variable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heck multicollinearity among the main variables, and mediation effects were examined. For this purpos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three-step verification method proposed by Barron and Kenn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sense of communi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the sense of community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motional intelligence. Third, emotional intelligenc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Lastly, emotional intelligence was confirme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ense of commun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ly, we strive to find and implement various ways to increase the sense of community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emotional intelligence skills and social participation of college students in the special situation of college, so that college students can form and sustain a happier and more satisfying life. We will have to help you do it.

Key words : College student, Sense of community, Psychological well-being,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ion effect

*정희원, 경남도립거창대학 사회복지보육학부 초빙교수
(제1저자)

**정희원, 경남도립거창대학 사회복지보육학부 초빙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4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15일

Received: March 4, 2024 / Revised: April 5, 2024

Accepted: April 15, 2024

**Corresponding Author: sinkb0@hanmail.net

Dept. Visiting Professor of Child Care & Welfare in
Gyeongnam Provincial Geochang College, Korea

1. 서 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듯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울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행복감이나 안녕감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을 살펴보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1]. 긍정심리학자들은 개인의 행복을 개인이 최고의 심리적 기능을 발휘하고 자기실현을 이루는 상태로 보고 있고, 이런 이유로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에 대해 초점을 맞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2].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기능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정서적 상태로 개인이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주어진 역할의 실제적인 기능을 잘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3]. 또한, 개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회복의 원천력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졸업 이후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4]. 이는 이후 성인기 발달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대학생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개인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이 필요로 하는 삶의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도움 즉 사회의 다양한 측면들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공동체 의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5]. 공동체 의식은 우리라고 느끼고 연대함으로써 갖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집단에서 구성원 사이의 믿음과 상호작용 의식을 갖는 것이다[6].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에 소속감을 느끼며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구성원들과 밀접하게 상호작

용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게 된다. 이렇듯 개인의 행복이나 가치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를 수 없다. 이에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6].

한편 대학생이 공동체 생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정서지능이 필요하다. 정서지능은 사회적 지능의 한 부분으로 정서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기술로서 자신의 삶에서 만족감을 향상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7]. 실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 적응력이 뛰어나 학교와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되고 있다[8].

이처럼 공동체 의식과 정서지능은 심리적 안녕감의 설명력을 높여주는 예측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공동체 의식은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지표들에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공동체 의식의 결여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9-10]. 또한 정서지능은 개인이 삶에서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행복감이나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지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11][7]. 그러나 기존에 진행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간호사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드물다. 특히,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해 공동체 의식과 정서지능이 가지는 역할과 내포하는 함의를 더욱 확장해서 탐색해 봄으로써 깊이 있는 학문적 이해와 대학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공동체 의식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공동체 의식은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정서지능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정서지능은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공동체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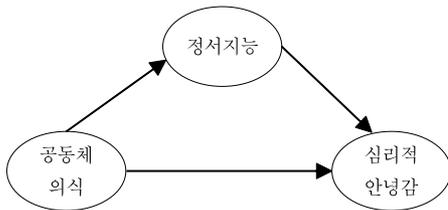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산·경남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임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였고, 자료수집의 기간은 2023년 4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총 29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결측이 있거나 자료로서 가치가 낮은 설문지 28부를 제외한 267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투입하였다. 표1에 보인 바와 같이 성별을 보면, 여자가 146명(54.7%)으로 남자 121명(45.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학년은 1학년 47명(17.6%), 2학년 77명(28.8%), 3학년 73명(27.3%), 4학년 70명(26.2%)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세를 보여주었고, 경제적 수준은 중 167명(62.5%), 상 51명(19.1%), 하 49명(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구분	내용	빈도(%)
성별	남	121(45.3)
	여	146(54.7)
학년	1학년	47(17.6)
	2학년	77(28.8)
	3학년	73(27.3)
	4학년	70(26.2)
연령	평균(23.27세), SD(2.387)	
경제수준	상	51(19.1)
	중	167(62.5)
	하	49(18.4)

3. 측정도구

1) 공동체 의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Chavis(1986)가 개발한 공동체 의식 지표를 박가나(2008)가 수정·보완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2]. 이 척도는 구성원의식, 상호영향의식, 욕구통합과 충족, 정서적 연계 등 4개의 하위요인에 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49로 나타났다.

2) 정서지능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Wong & Law(2002)가 개발하고 탁진국(2007)이 번역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3]. 이 척도는 자기정서 이해, 타인정서 이해, 정서활용, 정서조절 4개 하위영역에 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31로 나타났다.

3)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조윤주(2006)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4]. 이 척도는 자율성,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인생의 목표,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환경에 관한 지배 6개 하위영역에 각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08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의 내적일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하고, 주요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를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변인 기술통계

주요 변인의 기술적인 통계치는 표 2와 같다. 공동체 의식의 평균은 3.47($SD=.705$), 정서지능은 3.66($SD=.653$), 심리적 안녕감은 2.92($SD=.448$)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변인들의 왜도는 -.449에서 -.047로 나타났고, 첨도는 .495에서 1.129의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요 변수의 왜도는 모두 3 이하로, 첨도는 8이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정규 분포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변인 간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jor variables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공동체 의식	3.47	.705	-.207	.495
정서지능	3.66	.653	-.449	1.129
심리적 안녕감	2.92	.448	-.047	.604

* $p<.05$, ** $p<.01$, *** $p<.001$

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588 이상부터 .645 이하의 범위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p<.001$)로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구분	공동체 의식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공동체 의식	1		
정서지능	.645***	1	
심리적 안녕감	.588***	.636***	1

* $p<.05$, ** $p<.01$, *** $p<.001$

3.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주요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의 공차는 .01보다 큰 값의 수준을 보여주었고, 분산팽창계수는 10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요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3단계의 검증 방식을 적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보인 바와 같이 1단계에서 공동체 의식이 심리적 안녕감($\beta=.558$, $p<.001$)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었으며 설명력은 34.6%($F=139.959$, $p<.001$)로 나타났다[15]. 2단계에서 공동체 의식이 정서지능($\beta=.645$, $p<.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설명력은 41.6%($F=188.959$, $p<.001$)로 나타났다[15]. 3단계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에 공동체 의식과 정서지능을 독립변수로 동시에 투입한 결과 공동체 의식은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304$, $p<.001$)을 보여주었고, 설명력은 45.9%($F=111.855$, $p<.001$)로 증가하였다. 또한 공동체 의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1단계($\beta=.558$, $p<.001$)에 비해 3단계($\beta=.304$, $p<.001$)에서 낮아지는 효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개변수인 정서지능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beta=.440$, $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 주요변인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major variables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SE)	β	B(SE)	β	B(SE)	β	공차 VIF
공동체 의식	.373(.032)	.535***	.337(.043)	.645***	.193(.038)	.304***	.584 1.713
정서 지능					.302(.041)	.440***	.584 1.713
R ²	.346		.416		.459		
수정R ²	.343		.414		.455		
F	139.939***		188.939***		111.855***		

*p<.05, **p<.01, ***p<.001

정서지능이 가지는 매개효과의 크기에 대해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즉 공동체 의식에서 정서지능으로 가는 경로와 정서지능에서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에서 Z값은 6.507(p <.001)로 나타나고 있어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Sobel 검증을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Table 5. Verification of the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s through Sobel test

경로	Z
공동체 의식→정서지능→심리적 안녕감	6.507***

*p<.05, **p<.01,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이 삶의 만족도나 개인의 안녕감과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연구들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6-17]. 다만, 대학은 학과 전공 학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운명 공동체이다. 따라서, 학과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 형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공동체 의식이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이 높을수록 구성원들과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적절하게 인식하고 표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공동체 의식과 정서지능과의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학에서는 다양한 관계 지향적 활동방안 마련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고 사회적 정서와 유대를 창출하는 매커니즘으로 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주고 통합하는 기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18].

셋째, 정서지능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높은 정서적 능력이 더 큰 행복감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높은 정서지능은 대학생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힌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19-20]. 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의 증진을 가져다 주는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사회적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지능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이 직접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기여하기도 하고, 대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정서를 잘 활용하게 되어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1]. 따라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정서지능은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학생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서를 잘 활용하여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심리적 안녕감은 공동체 의식, 정서지능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정서지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서 연구결과와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식과 정서지능의 각 하위요인 간에 세부적인 영향력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 간의 하위요인들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검증하여 더욱 심도있는 이해와 함께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S. U. Jeon and J. W. Kim.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Recognition with their Parents' Sense of Unity and about their Parents' Devotion to them on their Subjective Happi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 8, No. 4, pp. 131-148, January 2016. UCI : G704-SER000001622.2016.8.4.009
- [2] H. J. Kim and Y. K. Lim.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esilience in Child-care center Teache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5, No. 4, pp. 321-328, November 2019.
- [3] Ryff, C. D.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 No. 6, pp. 1069, 1989
- [4] H. S. Kim. "The Effect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Life Happiness, mediated by Childre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Mental Health - Multi-Group Analysis on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No. 55, pp. 113-141, 2016. UCI : G704-000946.2016..55.002
- [5] Gattino, S., De Piccoli, N., Fassio, O., and Rollero, C. "Quality of life and sense of community. A study on health and place of resid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 No. 7, pp. 811-826. 2013.
- [6] S. A. Ryu. "The Effect of Collegiate Sense of Community on Individual Wellbeing and Social Involve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8, No. 3, pp. 43-60. July 2014. UCI : G704-000424.2014.28.3.005
- [7] Goleman, D.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Books, Inc.
- [8] Y. K. Kwang.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of Allied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JKSCI)*, Vol. 26, No. 8, pp. 149-156. August 2021. DOI : 10.9708/jksci.2021.26.08.149
- [9] Sánchez, B., Colón, Y., and Esparza, P. "The role of sense of school belonging and gender in the academic adjustment of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No, 34, pp. 619-628. 2005.
- [10] Farrell, S. J., Aubry, T., and Coulombe, D. "Neighborhoods and neighbors: Do they contribute to personal well being?,"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2, No, 1, pp. 9-25. 2004.
- [11] Austin, E. J., Farrelly, D., Black, C., and Moore, H. "Emotional intelligence, Machiavellianism and emotional manipulation: Does EI have a dark si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3, No, 1, pp. 179-189. 2007.
- [12] G. N. Park. "The Effect of Youth Participation on a Sense of Commun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6, No, 10. 2009.
- [13] J. K. Tak. "Differences in both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relations of emotional intelligence to job stress and stress coping based on sex and job posi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Kor. J. Psychol.: Health)*, Vol, 12, No, 2, pp. 307-324. 2007. DOI : 10.17315/kjhp.2007.12.2.002
- [14] Y. J. Cho. "The Effects of Productive Activities

- and Family Support on Elderly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Sphere Society*, Vol. 30, No. 2, pp. 23–44. 2007.
- [15] Baron, R. M., and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3. 1986.
- [16] Cacciari, E., Milani, S., Balsamo, A., Spada, E., Bona, G., Cavallo, L., and Cicognani, A. "Italian cross-sectional growth charts for height, weight and BMI (2 to 20 yr)," *Journal of endocrinological investigation*, Vol. No. 29, pp. 581–593. 2006.
- [17] Roussi, P., Rapti, F., and Kiosseoglou, G. "Coping and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 exploratory study of urban and rural areas in Greece," *Anxiety, stress, and coping*, Vol. 19, No. 2, pp. 161–173. 2006.
- [18] H. K. Park and K. S. Chung.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depression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5, No. 3, pp. 223–246. 2020. DOI : 10.20437/KOAECE25-3-10
- [19] H. K. Lee.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Nursing and Innovation*, Vol. 16, No. 1, pp. 11–20. 2012.
- [20] Bar-On, R.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 Insights from the Emotional Quotient Inventory,"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San Francisco: Jossey-Bass, pp. 363–388. 2000.
- [21] J. Y. An and S. H. Yoo.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ptance 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8, No. 2, pp. 173–197. 2016.